진짜 신앙을 위한 장갑원리

(민19:1~22)

11.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12.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13.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신앙을 위한 장갑원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진짜 신앙을 위한 장갑원리'
벌써 9월입니다. 10월이 지나고 11월 말이 되면 다시 또 겨울을 위하여 김장을 담그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도 집사람이 매년 혼자 김장을 합니다. 김장의 양이 많지는 않아도 일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다가 나와 보면 혼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떨 때에는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면서 장갑을 끼고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방해가 되면 집사람은 그냥 가서 당신일 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타박을 들을까 뒷골이 당겨서 한 것인데 혼자 한다고 하니 얼씨구나 좋다고 장갑을 후딱 벗고 나오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고무장갑을 벗어야 하는데, 이걸 끼어본 적이 없다 보니 뒷일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손목 부분에서부터 장갑을 뒤집어서 김장 재료로 난장판이 된 곳에 휙 던지고 가버리면 나중에 집사람이 보고는 이렇게 장갑을 벗어놓을 수 있느냐고 난리가 납니다. 장갑 안쪽에 김치 속 같은 것이 묻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장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선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선민이 연합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장갑으로 끼신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까지 반복하며 돌아봐야 할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도 눅11: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과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방식에 대해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주님을 장갑으로 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을 나와 동일시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장갑으로 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신앙이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 온전한 참 신앙단계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보다 더욱 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실감하고 강하게 체감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바로 장갑의 원리가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갑의 원리가 뭡니까? 장갑은 그저 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간단하고 일상적인 일에 무슨 원리가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장갑의 안쪽에는 장갑이 접촉하는 그 어떤 것도 묻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시뻘건 김치 속을 휘젓습니다. 그러나 장갑 속으로는 고춧가루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장갑의 원리인 것입니다. 어떤 장갑이라도 접촉하는 것이 장갑 안쪽으로 묻어서는 안 되고 담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장갑의 원리입니다. 이 장갑의 원리가 활성화되지 않는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져있는 것이고, 참 신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장갑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첫 부분을 보면 "잿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잿물은 아궁이에서 볏단이나 나무를 땐 재를 따듯한 물에 담아두면 앙금 같은 것이 생기는데 찌꺼기를 걸러내면 물이 미끈미끈하게 되는데 그 물을 사용하여 때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아직 세탁용 비누가 드물었던 60년대 초까지도 잿물을 사용했고, 조선말에 개항이 이루어지면서 서양식 잿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양잿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 실 등의 여러 가지 재료를 다 태워서 재를 만들고 그것으로 잿물을 만들어서 정결케 하는데, 빨래를 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시체와 접촉하게 되어서 더럽혀진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잿물 제조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죄의 속함'이 복음의 핵심 문제인데 죄의 속함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죗값이 속해져야 하고 죄적 존재로 있으면 또 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죄적 존재인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번제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침에 세수를 했어도 얼굴이 더러워져서 저녁에 또 세수를 해야 하고 잠자고 일어났어도 또 세수를 하는 것처럼, 번제단에서 세상을 향해 내가 죽은 상태에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계속해서 우리

의 삶과 마음이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에 세수와 같은 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와 접촉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더러워도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접촉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신경을 쓰시는 부분은 바로 더러움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정함입니다. 부정하면 끊어지게 되는데 선민 됨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함은 이렇게 죗값을 속하고, 죄를 생산해내는 죄적 존재가 번제단에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더라도 계속해서 더러워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재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는 생활화가 일어날 때에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이 일어나는데 우리 삶에도 정결함이 일어나고 마음에도 정결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가 또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시체와의 접촉을 통한 부정함입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까지 오는 동안에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신경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민과 관계를 시작하실 때 신경 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선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우선 관심이고, 건강이 관심이고,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관심이고, 가정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이 관심이고, 회사가 잘 될 것인지 나라가 안전하게 유지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편집증적으로 한 곳에 몰려 있는데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사실 우리의 실제 삶과는 무관해 보일 정도가 아니라 무관한 것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의 건강이나 가정이나 사업과 나라의 부국강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와 접촉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지 아닌지에만 신경을 쓰시는데 마치 아내가 김장을 할 때에 제가 무심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무심하시기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깨끗함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정결함(청결함)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먹고 사는 것이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노후의 문제 등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 안에 복안이 있습니다. 오직 깨끗하고 정결해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연합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에덴이 주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뜻이 있으시고 자신이 있으시고 복안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만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나와 접촉하기 위한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시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정결함을 강조하실 때마다 시체 이야기가 반복되느냐면 시체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복음의 시대에서 시체를 염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신 집사님들이 토요일까지 일하시다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그분들의 예배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 것처럼 여기서 시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항상 정결함과 연결이 됩니다. 시체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데 정결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복하시니 저도 반복합니다. 정결함이 청결함과 같은 의미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상태입니다. 삼라만상이 있는데 그것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곳에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어야 될 것이 결정되고 그것이 있게 될 곳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체란 더 이상 있어야 될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으시므로 이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시체는 이미 인격이 몸에서 떠난 상태입니다. 몸과 인격의 혼연일체가 된 상태로 존재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있음에 대한 뜻이 없는 것이지요. 시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정하지 않은 모든 일과 모든 대상과 모든 사건이나 모든 계획이 다 시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퇴직금까지 투자해서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있어야 할 일이 아닌데도 내 뜻으로 했다면 이것이 시체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 뜻 안에서 있어야 될 것으로 결정된바 없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만지고 있는 이 일이 잘 되게 기도를 하는데, 시체를 만지면서 시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업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일괄적으로 이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시작하고 있느냐? 자식에 관한 것도 하나님 뜻에 없는데 내가 자식을 사랑한답시고 이런저런 계획을 자식에게 적용시키면 계속해서 시체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마치 책상 위에 김치를 놓는 것 같은 더러움을 만들어 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는데 이것은 이미 선민으로서 삶의 모습이 중단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깨알 같은 많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알들을 부화시키려고 하셨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접으시고 더러움을 제거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깨어집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시체 같은 모든 일들을 다 무산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건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면서 시체를 만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방해될 수밖에 없는 더러움을 깨우치게 하시는데 총력을 기울이시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모든 사역이 뒤로 젖혀지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갑으로 일을 하시게 될 때에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하고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평강이 깨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탄의 가시 같은 말뚝이 내 몸에 박혀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으로 느끼게 되고 고통의 담벼락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하면 더러워지는 것이므로 매사에 물어봐야 합니까? 물어봐야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들만을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묻는 수준에서 더 근원적인 차원으로 나가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갑은 주인이 끼었을 때에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장갑이 접촉할 대상에 대해 접촉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인이 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갑의 겉이 우리의 몸이라면 장갑의 속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들로만 행동하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과 하고 싶은 것들을 묻는 차원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끼실 수 있도록 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빌2: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장갑으로 끼시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우리의 몸을 통해 표현이 되는데 장갑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삶에서의 더러움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라고 묻기 전에 내 마음에서 장갑의 원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접촉하게 되는 그 어떤 것도 장갑 안으로 담지 않고 묻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으로 삼으실 때에는 장갑 안쪽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끼시면 이것저것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어거스틴의 말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장갑으로 끼실 수 있을 만큼 장갑의 속인 내 마음이 깨끗하면, 장갑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인 것 아니겠습니까?

장갑이지만 인격입니다. 내가 인격이랍시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골프채를 수입하는 사업을 해야겠다고 내 마음에 담았습니다. 골프채를 수입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있으면 내 몸이 접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갑 원리로 생각하면 왜 골프채를 수입하는 사업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까? 이것은 김장을 담그면서 김치 속을 고무장갑 안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장갑으로 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사업장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해 사업을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참 신앙인으로서 사업가인 것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에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갑의 바깥인 내 몸으로 접촉해야 될 자녀를 장갑 속인 내 마음으로 끌어들여버리면, 속이 더러워지고 꽉 차서 하나님이 끼실 수가 없게 됩니다. 장갑을 벗어 놓으면 쭈글쭈글해집니다. 충만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속마음에 충만함이 없을 때 만족

이 없어서 자꾸 돈이나 건강이나 승진이나 가정이나 사업 등을 담게 되는데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고 바보라도 다 행할 수 있는 장갑 끼기의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끼셔야 될 장갑의 속이고, 우리 몸은 하나님이 끼시면 수많은 것들과 접촉해서 이뤄야 할 장갑의 겉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고무장갑에 김치 속을 담고 김장을 하겠다며 달려드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속에 돈을 담고 있다면 자식을 그 손으로 만질 때에 자식에게 돈이 묻어납니다. 돈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해도 자식을 기를 때에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로 가게 하는데, 시체 만진 썩은 손으로 자식의 얼굴을 예쁘다며 쓰다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사업이 사명이 되는데, 내 마음에 돈을 채우고 사업장에 가면 다 썩은 시체 놀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손이 끼실 수 있도록 장갑원리에 입각한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한 순간도 빠짐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더 강렬하고 정확하게 매 순간마다 해내느냐가 신앙의 경주에서 더 앞선 사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어려운 조직신학적 교리 같은 것은 몰라도 딱 한 가지 '나는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의 죽음이 현재의 나의 죽음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이제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주시고,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를 장갑으로 끼어주시옵소서.'라는 이 한 가지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때든지 돈을 만질 때든지 건강을 생각할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는 사람이 참 선민입니다. 장갑의 원리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장갑으로 끼실 수 있게 정결을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참 신앙의 길이고, 이 유일한 참 신앙의 길은 오직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몸이 장갑의 겉이요, 우리의 마음이 장갑의 속임을 알아서 장갑의 원리에 따라 십자가를 붙잡고 생활화함으로서, 하나님의 손이 끼워져 충만함으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바가 나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